

##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승의 기치

김 혁 철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만리마시대의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의 총진군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총결기, 총발동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결사전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가는 대담무쌍한 돌격사상이며 승리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나가는 계속혁명사상이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전속력으로 내달릴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승의 기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에 관통되어있는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여온 백승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담대한 배짱,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썩을 치고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려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시고 끊임없는 공격전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승리만을 펼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공격정신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애국에 불타는 인민의 힘에 대한 크나큰 믿음, 그 어떤 고난이 앞을 가로막는대도 기어이 승리하려는 확고부동한 신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백절불굴의 공격정신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고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집어삼키려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적들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었으며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 라던 폐허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로 도약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민족의 아버지를 잃고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를 지펴올리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는것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봉쇄도 단호히 맞받아나가 짓부셔버리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하고 강인담대한 배짱과 령도력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공격정신과 비범한 령도력에 의하여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굳건히 지켜졌으며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뼈속깊이 쏘아박고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승의 기치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천만군민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데 있다.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에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피를 물고 덤벼드는 원쑤들의 책동을 짓밟개버리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가 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사소한 주저와 동요, 타협과 양보,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주체혁명의 궤도따라 오직 곧바로 내달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라는데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의 무한대한 생명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 인민이 당을 심장으로 따르고 받든다는것은 곧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필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간다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의 트랙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당의 공격

사상의 체현자가 되어야 한다. 천만시련도 강행돌파해나가는 무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최첨단의 요새도 우리 식으로 점령해나가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심어주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공격사상이다.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승승장구해온 우리 혁명의 백승의 전통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곳곳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시고 끊임없는 공격전, 단숨에의 기상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적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단호히 쳐물리치며 백승의 역사를 빛내여가시는 천출명장의 기상이 있어 이 땅우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우리 조국은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준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행군속도에 발맞추어 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이로 내달리며 총돌격전의 순간순간을 순결한 충정과 빛나는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갈 때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승의 기치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력자강의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사상이기 때문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강하면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여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정신적강자들은 천리도 지척으로 보고 막혔던 길도 단숨에 열어나갈수 있지만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정신적약자들은 지척도 아득한 만리처럼 보며 열려진 길로도 나갈수 없다. 자력자강의 신념을 간직하지 못하면 완강한 난관극복의 정신, 대담한 공격정신이 나올수 없다.

우리 혁명의 공격전의 역사는 자력자강의 역사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혁명사상을 배우고 자력자강으로 만만시련을 헤치며 자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정신력의 최강자, 자강력의 체현자들이다.

백두밀림에서 연길폭탄과 더불어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고 1950년대를 뒤흔들어놓은 자력갱생의 장엄한 우뢰는 우리 조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공업화의 대문에 들어서게 하였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가장 비참한 식민지약소국이었던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것도 자강력제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으로,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중첩되는 만만시련을 자력자강의 억센 힘으로 맞받아 뚫고나갔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끈질긴 방해책동과 도전속에서도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이지만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강력은 강성번영의 최강의 무기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과 함께 허리띠를 조이며 수십년간 다지고다진 튼튼한 자립적경제력이 있으며 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피땀으로 수호하고 빛내여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때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게 실현된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뼈에 새기고 백배, 천배의 힘으로 총공격전을 벌려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실마리어 공격사상, 사회주의강국, 최후승리